

영화 '드림' 배우 박서준 "안정은 없어요...계속 도전할 거예요"

홈리스축구팀 이끌고 월드컵 가는 감독
"이병헌 감독 영화라면 꼭 하고 싶었다"
"다시 한 번 기회 주는 메시지에 공감"
드라마 성공 글로벌 스타 마블 영화도
"무모해도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

영화 '드림'은 홈리스 축구 월드컵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노숙자 남성들의 이야기다. 함께 땀 흘리고, 힘을 모아 뛰면서 인생 재기를 시도하는 과정을 담는다. 물론 축구는 승패가 있는 경기. 하지만 이 이상한 월드컵은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다. 한 번 고꾸라졌고 꽤나 뒤쳐져버렸지만, 다시 일어서서 뛸 수 있다는 그 감각이 더 중요하다. 2018년 '극한직업'으로 1600만 관객을 끌어모은 이병헌 감독은 특유의 코미디로 자칫 심각해질 수 있는 이 스토리를 유쾌하고 담백하게 풀어낸다.

배우 박서준(35)은 '드림'에서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경기가 열리는 헝가리로 향하는 감독 '홍대'를 맡았다. 축구선수인 홍대 역시 처지는 다르지 않다. 프로 선수가 되긴 했지만, 축구선수로서 경력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 게다가 유일한 가족인 엄마는 빚쟁이에게 쫓겨 얼굴 보기도 힘들다. 경기 중 울컥한 그는 그라운드에서 사고를 치고 기로에 선다. 축구선수를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관뉘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게도 다

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다 우연찮게 홈리스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는다. 박서준은 어찌 보면 우울하기만 한 홍대를 역시 이 감독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에 딱 들어맞게끔 발랄하지만 오버스럽지 않게 표현한다.

'드림' 개봉을 앞두고 만난 박서준은 "일단 감독님을 믿었다"며 "메시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출연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영화 '스물'을 본 뒤에 감독님 영화에 꼭 한번 출연해보고 싶었어요. 당시엔 제 또래 배우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았는데, '스물'이 나온 거죠. 동년배끼리 정말 재밌게 연기하는 이 영화를 만든 분이 누군지 봤더니 이병헌 감독님이었어요. '극한직업' 당연히 좋아했고, '멜로가 체질'도 좋아했죠. 일단 감독님 영화라는 얘기에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드림'이 이 감독 영화여서 출연한 건 맞지만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다. 이 작품에 담긴 메시지에 공감하지 못했다면 출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박서준은 잠시 나오

했더라도 기회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 간결하고 올바른 이야기에 끌렸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2020)가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글로벌 스타로 불리는 그이지만 데뷔 직후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박서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정말 포기하려 했을 때 그를 계속 연기에 붙들어 놓은 것도 기회였다. 원하는 역할을 따내지 못했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박서준은 더 이상 포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홈리스 축구단 감독님에게 들었어요. 이 축구 대회는 꿈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대요. 수비는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수비수는 하프 라인을 못 넘어 오죠.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으니깐 당연히 골 기회가 많이 나는 거죠. 꿈을 날게 해줌으로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낙오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참 좋더라고요."

'드림'을 스포츠 영화로 부르기는 힘들다. 어디까지나 아마추어 선수들의 대회이고, 애초에 경쟁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경기가 소재이니깐. 하지만 홍대는 현역 축구선수다. 박서준은 축구선수에 어울리는 몸을 만드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짧지만 홍대가 노숙자 선수들에게 프로 선수의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하기 위해 축구 훈련도 꾸준히 했다. 그는 "체력 훈련을 가장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뛰는 장면이 많으니까 체력을 끌어올렸어요. 최선을 촬영하다가 지치지 않는 말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엔 실제 홈리스 축구단 감독님에게 기술을 배워서 반복 훈련했죠. 그리고 동네 조기 축구에도 나갔어요.(웃음) 연예인 축구단 아니고 진짜 조기 축구요." 이번 영화를 보면 박서준이 공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박서준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일례로 그는 오는 11월 개봉 예정인 마블 영화 '더 마블스'에 출연한다. 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동석에 이어 한국배우로는 두 번째로 마

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에 합류하게 됐다. 현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경성 크리처'를 촬영 중이다.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연기 경력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안정을 택하는 순간 안주할 것 같아요. 발전이 없을 것 같고요. 도전할 게 있어야 일을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저는 일단 목표가 생기면 설령 무모할지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선택하려고 해요. 남들이 하는 얘기는 신경쓰고 싶지 않아요."

MC 서동주, "서세원과 8년간 왕래없어"



변호사 출신 MC 서동주가 아버지인 개그맨 서세원(67) 사망에 애도했다.

서동주 측근인 이성희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동주와 함께 캄보디아에 다녀 왔다.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고인(서세원)이 서동주와 7~8년 정도 왕래가 없어서 유족들 간 오해를 조율했다"며 "서동주는 고인 장례식장(캄보디아에 마련된 임시 빈소)에서 매우 애도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모텔 출신 서정희) 갈등이 자식에게까지 번져 원치

않는 관계로 만나지 못했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부모와 자식의 마음으로 대면하는 모습을 봤다"고 털어놨다.

"재혼한 가족과 양측이 오해가 있었다. 충돌 직전까지 갔지만 지혜롭게 조율했다. 본인이 생각하면 일이 커지지 않느냐. 재혼한 가족도 서동주 입장에서 아버지에 관한 예우를 하도록 도왔다. 재혼한 부인은 황망한 마음에 여러 차례 혼절했고, 생전 고인이 많이 아꼈던 딸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도 봤다."

서세원은 20일 오전 11시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인병원에서 사망했다. 평소 당뇨 합병증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링거를 맞다가 심정지가 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인 측근인 박현욱 전 캄보디아 한인회장은 "프로포폴 투약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세원이) 팔에 링거를 꽂고 있었고 오랜지색이었다. 수액을 맞다가 영양제를 넣은 것 같았다"고 반박한 상태다.

서동주는 20일 캄보디아에 마련된 임시 빈소를 찾았으며, 24일 귀국해 가족들과 장례절차 등을 논의 중이다. 아직 시신 운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 있는 건 맞다"며 "간호사를 제외하고 최초 목격자가 누구이고, 최초 목격자에게 연락을 취한 병원 관계자는 누구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서세원 관련한 재산 상속 등 여러 보도는 가십성이고 자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브 자체 리얼리티 '1, 2, 3 아이브' 시즌3

그룹 아이브의 자체 리얼리티가 돌아온다. 지난 24일 오후 11시 아이브는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체 리얼리티 '1, 2, 3 아이브'의 시즌3 공식 예고편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18일 시즌2 마지막 에피소드 공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아이브는 대중들이 사랑한 예능 프로그램과 게임을 아이브만의 예능 감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영상 속 아이브는 자신의 짝꿍을 찾는 매칭 프로그램부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올드 앤 뉴 상상다하기', '아이브 오락관', '서바이벌 동고동락', '아이브 투게더 식빵 노래방', '담



력체험 등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차용한 콘텐츠 등을 선보였다.

아이브의 '1, 2, 3 아이브' 시즌3은 내달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 아이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블랙핑크, 끝이 없다...여성그룹 월드투어 역대 최고 수익



영 그룹 '스파이스 걸스' 2위로

그룹 '블랙핑크'가 걸그룹 월드투어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낸 그룹이 됐다.

지난 23일 더 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세계적인 영구 그룹 '스파이스 걸스'의 기록을 깨고 여성 그룹으로 진행된 월드투어 수익 1위를 경신했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월드투어의 시작을 알렸고, 18개 도시 총 26회 공연을 성료했다.

약 36만6000장의 표를 팔았으며, 약 7850만 달러(한화 약 1045억7800만)의 수익을 기록했다.

스파이스 걸스의 2019년 월드투어가 13개 공연 매진으로 약 7820만 달러, 한화로 약

1041억9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기록을 블랙핑크가 깼 것이다.

이들의 티켓 판매량은 아직 2023년에 진행된 16개 공연은 집계되지 않았다. 블랙핑크는 여전히 19개 공연을 남겨두고 있으며 블랙핑크의 미국 양코르 콘서트 공연 일정의 추가로 이 기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연은 오는 8월 12일 미국 뉴저지 메트로폴스 타디움을 시작으로 18일 라스베이거스, 22일 샌프란시스코, 2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총 4회 개최된다.

더불어 블랙핑크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코철티라 뮤직 페스티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헤드라이너를 장식한 그룹이 됐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공연을 생중계로 함께한 관객은 약 2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웨이브 '거래' 유승호, 10억대 동창 납치극

"소재 독특했고, 언젠가 날 것의 캐릭터 해보고 싶었다"

배우 유승호가 웨이브 '거래'에 출연한 계기를 밝혔다.

유승호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웨이브 콘텐츠 라인업 설명회'에서 "일단 소재가 독특했고, 언젠가 날 것의 캐릭터를 해보고 싶었다"며 "이정근 감독님의 전작 '낮아들'(2021)을 보고 색감, 느낌이 거래와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처음 봤을 때 감독님의 눈웃음과 밝은 모습을 잊지 못했더라. 내 마음이 편해지고, '기밀'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웨이브에서 힘을 많

이 실어줬다"며 "웨이브가 스릴러, 범접 장르물 경험이 많지 않느냐. '승호씨 걱정 말고, 열심히 촬영만 하면 된다'고 해줘서 믿었다"고 덧붙였다.

이 드라마는 20대 청년 '이준성'(유승호)과 '송재호'(김동휘)가 10억원대 납치극을 벌이는 이야기다. 인질로 잡힌 동창 '박민우'(유수빈)를 포함, 세 친구의 허술한 납치극은 견장을 수 없는 길로 빠져든다. 동명 네이버웹툰이 원작이다. 이날 처음으로 하이라이트 영상과 스틸 컷을 공개했다.



'가왕' 조용필,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장르 도전...'라'



'필링 오브 유' 등 담긴 EP 발매

'가왕' 조용필(73)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다.

26일 소속사 YPC·음반유통사 유니버설뮤직에 따르면, EP '로드 투 트윈터-프렐류드 투(Road to 20-Prelude 2)'에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장르인 '라'가 실린다. 팀, 다운템포 등을 더해 기존 하우스 장르보다 복잡함이 특징이

다. YPC는 '라'에 대해 "조용필이 새로운 도전을 명민하게 '자기화'하는 아티스트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조용필은 이번 EP에서도 트렌디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는 기민함을 보인다. '라'와 함께 실리는 신곡 '필링 오브 유(Feeling Of You)'는 신스팝이다.